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에 도움 줘 감사합니다”

박천옥 까탈루냐 한인회장, 당시 교민 의견 전달 힘쓴 박주선 의원·본보 초청
여권 재발급 등 영사업무 불편 해소...화합 잘 되는 모범 한인회 이끌어갈 것

스페인 바르셀로나(까탈루냐) 교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이 지난 1월25일 재개관해 정식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까탈루냐 한인회가 바르미레당 박주선 의원과 광주매일신문 김진수 서율취재본부장을 공식 초청했다.

바르셀로나 시내 메인 도로인 그라시아 거리 103번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은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직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폐쇄됐다가 2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바르셀로나는 교민수가 약 1천500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이 지역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수가 45만명에 이를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여권발급에 따른 재발급 등 영사 수요가 많은 지

역이다.

까탈루냐 한인회가 영사관 재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한 것은 3년 전인 지난 2016년 3월5일.

당시 이사회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모든 영사업무를 650km나 떨어진 마드리드까지 가서 요청 또는 발급받는 것은 우리 교민 또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시간, 경제적인 손실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바르셀로나에 영사관 개설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결의했던 것.

까탈루냐 한인회가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한 소식을 발 빠르게 국내에 전달한 곳은 광주매일신문이었다.

당시 한인회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이 필요했었고, 이를 전해들은 김일출 세계태권도연맹 총괄사무차장이 당시 한국지역인론인클럽(KLJC) 5대 회장을 맡고 있던 김진수 본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천옥 회장은 대도(DAEDO)라는 태권도 경기용 전자 호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세계태권도연맹 김일출 차장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광주매일신문은 2016년 7월24일자 보도를 통해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의 필요성, 까탈루냐 한인회의 서명운동, 그리고 이들이 국회와 외교부 등을 방문한 사실 등을 집중 보도했다.

광주매일신문은 또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국회의장이던 박주선 의원에게 까탈루냐 한인회의 입장



대한민국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을 23년 만에 재개설 시킨 주역인 박천옥 회장. 박 회장이 1만명에 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정부, 국회 쪽에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은 까탈루냐 한인회가 무엇보다 단합과 화합이 잘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을 전달하고, 박 부의장이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과 관련한 교포사회의 목소리를 정부쪽에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까탈루냐 한인회의 노력과 각계의 협조에 힘입어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2017년 3월28일 제석 195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올 1월 역사적인 재개설을 하게 됐다.

박천옥 회장은 “총영사관 개설을 청원하는 1만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식당과 여행사 등 곳곳을 뛰어다녔다”면서 “바르셀로나 시내 중심인 그라시아 대로변에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돼 가슴 뭉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까탈루냐 한인회의 공식 초청 소식을 접한 박주선 의원은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외 교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 뿐”이라며 “한인회의 초청은 감사하지만, 이런 저런 일정상

초청에 응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본보 김진수 본부장도 “여러 사정상 직접 스페인에 갈 수는 없지만, 한인회의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화합이 잘 되는 까탈루냐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부터 프랑스 남쪽 피레네 산맥과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다. 1992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바 있으며, 화가 파블로 피카소, 호안 미로와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등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도시로 유명하다.

지난 2014년 11월9일 카탈루냐 의회의 승인 하에 열린 비공식 주민투표에서 전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중앙정부는 주민투표가 위헌이라고 맞서는 등 현재까지도 스페인 정부와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최권범기자



광주환경공단, 청림 사적지 탐방교육

신규직원 등 다산초당 방문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공직자 청렴도 제고와 바람직한 공직자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신규직원과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청림 사적지 탐방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청림 사적지 탐방교육’은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 등의 직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조선 후기 공직자의 ‘청림’을 최고 덕목으로 삼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강진군 문화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약용 선생의 삶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시의 유배생활과 저서활동을 했던 초당을 둘러보며 청

림 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했으며 자가 청렴도 측정을 통해 청렴 내재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공단은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금까지 부패사고 제로 기관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면제됐다.

김강열 공단 이사장은 “이번 청림사적지 탐방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서 공단 내에 청렴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 협약

광주 자원봉사자 90여명, 대구 방문 상호동행 약속

광주 자원봉사자 90여명이 8일 대구를 방문해 영호남 자원봉사자 간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자원봉사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은 정기적인 상호방문 교류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동발전과 시민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2013년부터 민간차원의 교류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기 상호방문 교류 ▲

정보공유 ▲봉사활동 연계 ▲협력사업 추진 ▲재난재해 시 공동대응 등 자원봉사 실천을 통한 살아있는 동맹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달빛동맹 협약식에 이어 달성도성마을, 비슬산 대견사 탐방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자원봉사

달빛동맹을 통해 광주와 대구시민이 우애와 화합이 돈독해지길 기대한다”며 “영·호남 자원봉사 활성화에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성숙한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중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대구에서 지역의 묵은 감정들은 모두 버리고 광주와 대구의 힘을 모아 영호남이 하나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광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6곳 지정

광주시는 8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내남2지구, 서구 서창지구, 남구 월성지구, 북구 삼각월산지구, 광산구 명도1, 산월1지구를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는 1천66

5필지, 120만4천111㎡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각 자치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다. 국비 지원을 받아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범기자

金지사, 장기 와병 공무원 위로·격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7일 장기와 병 중인 직원 29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위로와 격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직무 수행 중 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출혈 등 장기 치료 중인 직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빠른 쾌유를 바라는 뜻에서 이뤄졌다.

취임 초부터 직원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김 지사는 직원들이 건강하

고 행복해야 도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올해 들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도청 내에 운영 중인 체력단련실에 트레닝 장비를 새로 지원하고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주 2회 운영 중인 심리상담실을 직·사업본부까지 확대했다.

무엇보다도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 건강검진비를 인상하고 단체보험 가입 범위도 입원의료비에서 통

원의료비까지 확대했다.

김 지사는 “대기 오염방지 시설을 점검하다가 떨어져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한 직원의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작은거인 X-T30

후지필름 TP존 광주점 (에이치디코리아)

신제품 미러리스 카메라 파격판매!

후지필름 TP존 광주점 오시는 길

TP Zone 이란?
Touch Point Zone의 의미로 후지필름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하는 All in one 서비스 매장으로, 각 지역에서 동일한 프로모션 및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점	062-522-2000
지 점	062-350-8397
서비스센터	062-365-9999

CMYK